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39.20원 하락한 1,246.50원에 마감

20일 환율은 전일대비 39.20원 하락한 1,246.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2.00원 하락한 1,253.70원에 개장했다. 한미 통화스왑체결 소식에 전일 급등분을 되돌리며 겹다운 출발하였다. 장 초반 급락에 따른 결제 수요 유입에 하단이 지지되었으나, 달러 유동성 우려 완화 및 아시아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으로 낙폭을 확대하며 1,238.00원 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하였다. 이후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관련 달러 수요에 낙폭을 축소하며 전일대비 39.20원 하락한 1,246.5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134.66원이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53.70	1264.20	1238.00	1246.50	1254.1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70.62	1170.62	1047.46	1124.40

금일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에 1,250원대 중반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1,250원대 중반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9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46.50원) 대비 8.65원 오른 1,253.25원에 최종호가 됐다.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미국은 사실상 자택 대피령을, 영국은 휴업령을 내리며 각국의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며 환율 상승 예상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미국의 탄탄했던 고용시장의 위기가 예상되고, 골드만삭스가 올해 2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경기 침체 우려 가중되며 위험선호심리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세에 따른 달러 수요 및 글로벌 달러 조달 조건 악화로 계속되는 달러 선호는 환율 상승 압력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 통화 스왑 체결 등 당국의 달러 유동성 공급을 통한 미세조정 경계는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49.67 ~ 1264.67 원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832.41억원

체크포인트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65원 ↑
	■ 美 다우지수 : 19173.98, -913.21p(-4.5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3.8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84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